

‘결국’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

이은령*

|| 차례 ||

- I. 서론
- II. 선행연구와 연구대상
- III. ‘결국’의 의미적 기능
- IV. 발화행위의 표지 ‘결국’
- V. 결론

【국문초록】

‘결국’은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양태 문장부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류에 ‘마침내’와 ‘드디어’와 같은 어휘가 있으나,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을 때 ‘결국’은 유사 어휘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맥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은 기존의 부사연구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고, 유의어 간의 구별도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어휘는 각각 조금씩 그 의미적 특징들이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품사분류와 문장부사의 특성 연구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용량 말뭉치와 언론 기사문에서 약 6,700건의 ‘결국’의 용례를 추출하여 어휘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태소 주석이 된 세종말뭉치의 문어와 구어 말뭉치를 모두 활용하여 ‘결국’이 나타나는 환경을 분석하고, 문장 내에서의 쓰임을 고찰한다. 특히 기존의 논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과 논증에서 접속 기능을 상세히 고찰한다. 이를 통해서 형태 및 통사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미와 화용적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교수

기능에 특징을 밝혀 향후 ‘결국(fin)류’의 의미 및 화용적 기능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결국, 의미 기능, 화용적 기능, 담화표지, 문장부사

I. 서론

‘결국(結局)’은 애초에는 명사이던 것이 그 의미적 특성 때문에 조사가 생략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다가 부사로도 통용되는 어휘이다. 흔히 ‘부사성 명사’로도 불리는 ‘결국’은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명사로 서보다는 부사로서의 쓰임이 월등히 많아 부사(어)로서, 특히 문장부사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결국’은 ‘마침내’와 ‘드디어’ 같은 부사 어휘와 함께 어떤 사태의 마지막 국면을 강조하는 어휘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들 세 어휘는 ‘마지막 국면’이라는 의미적 속성을 지니고, 문장 내에서 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어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마침내’와 ‘드디어’가 빠짐없이 부사의 하위범주 분류 대상이 되었던 반면, 이들과 기능 및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어휘인 ‘결국’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런데 ‘결국’의 실제 용법을 살펴보면 ‘마침내’나 ‘드디어’와는 다른 의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보다 세분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자.

- (1) 고생 끝에 그는 결국(마침내, 드디어) 성공했다.
- (2) 결국(마침내, 드디어) 그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 (3) 나는 결국(*드디어, ?마침내) 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했다.

(4) 어떻게든 그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마침내, *드디어) 무산되고 말았다.

(1)에서는 [결국, 드디어, 마침내] 모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으며, (2) 고생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2)의 경우는 세 단어가 모두 쓰일 수 있으나, 각각의 부사를 사용하면서 내포 의미는 달라진다. 즉, '결국'이 '두 사람이 헤어짐'을 단순히 최종적 상황으로 단언하는 것과는 달리, '마침내'와 '드디어'에서는 화자가 이러한 최종적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거나 회구(希求)하고 있었음을 내포하게 된다. (3)에서는 앞의 문장이 생략되어 있으나, '그의 간청'이 지속해서 반복된 끝에 이른 최종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결국'과 '마침내'는 쓰이지만 '드디어'는 문장을 어색하게 만든다.

특히 (3)은 최종적 상황에 대한 단언이라는 점에서 (1), (2)와 유사하지만 앞선 예에서와는 달리 '드디어'의 쓰임은 부자연스럽다. 이것은 (2)에서 보았듯이, '드디어'는 발화자가 회구하는 내용과 호응하는데 (3)의 '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함'은 화자의 의도와는 다르므로, '드디어'와 호응이 어렵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이 맥락에서 '마침내'는 후행하는 결과의 결합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결국'은 후행절의 내용과 무리 없이 결합한다. '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결국'과 함께 '발화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 혹은 '발화자의 기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드디어'와 '마침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화자의 기대나 예상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4)의 경우에서는 '결국'의 쓰임만이 자연스러운데, 양보의 의미가 있는 선행절 뒤에서 '결국'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다. 이것은 이 글의 III 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룰 '결국'의 접속 기능으로서 '마침내'와 '드디어'

어'에는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다. 특히, 신문기사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결국'은 종래의 문장부사로서 뿐만 아니라, 담화의 층위에서 문장의 의미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구어 말뭉치에서는 화자와 발화 상황 간의 관계까지 표현하는 화용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용례도 관찰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간의 문장부사 논의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진 '결국'의 다양한 의미 및 화용적 기능에 대한 공시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문장이 표현하는 사태에 대해 '마지막', 혹은 '최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 및 결합된 어휘표현을 '결국(fin)류'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하고¹⁾ 이들 어휘류에 대한 서구어와의 언어 간 대조 연구를 위한 기반 연구로서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결국'의 기능과 의미, 그리고 화용적 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결국(fin)류'의 부사(구)가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문장 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용적 기능까지 수행하여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로서²⁾ 기존의 품사와 범주를 넘나드는 의미와 화용 연

1) 여기서 '결국(fin)류'라고 함은 한국어에서 "결국, 마침내, 드디어, 마지막, 종내, 끝내, 필경, 비로소, 궁극" 등과 영어에서 나타나는 "*finally, ultimately, after all, at (long) last, in the end, in the long run*" 등과 프랑스어의 "*finalement, à la fin, enfin, au bout du compte, à la fin du compte, après tout*" 등과 같이 마지막 혹은 최종적 국면을 나타내는 어휘를 말한다. 이후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조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결국(fin)류'의 어휘군 설정의 타당성과 그 분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논 의할 것이다.

2) 국내에서 대화 혹은 담화 내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지에 대한 용어로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를 주로 사용한다(Shiffrin 1987, Jucker & Ziv 1998, Fraser 1999, Dostie 2004). 이 용어는 사실상 그 형태가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학자마다 "discourse particle"(Schorup 1985, Hansen 1998), "pragmatic particle", "discourse connective" 등으로 약간씩 다르게 쓰이기 때문이다. Dostie(2004:43)에 따르면 담화표지는 크게 화용적 표지(pragmatic marker)의 한 부류이며, 화용적 표지는 담화표지와 텍스트 연결어로 분류할 수 있다.

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특히 한국어의 부사 ‘결국’이 갖는 기능과 특성을 살펴서 언어 간 대조 연구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와 연구 대상

1. 선행연구로 본 ‘결국’의 분류와 특징

‘결국’은 조사 없이 쓰인 명사구의 핵을 이루는 명사로, 또는 명사 전성 부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결국’은 (1)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않으며 (2) 조사 없이 문장 수식어로서 그 쓰임이 더욱 빈번하다.³⁾ 이러한 언어사용의 현실을 반영하듯이 ‘결국’은 부사성 명사라는 형태적 특징을 띠면서도 주로 부사어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그럼에도 ‘결국’은 부사의 하위분류, 문장 부사, 유의어 연구 등에서 주변적으로 언급되어왔을 뿐이다.

그간의 연구 중에서 ‘결국’에 대한 분석은 형태 및 통사적 접근에서, 부사성 명사(신서인 2010)와 문장부사 연구(신서인 2011)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 부사의 하위 구분(임유종 1996)이나 문장부사 중 서법 부사로서의 의미적 특징(손남익 1995)과 연계되어 언급되었다. ‘결국’은 대부분 문장부사로서 취급되었지만(신서인 2011, 임유종 2006) 그 외의 연구에서는 아예 부사의 하위분류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미 문장부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고, 이 글의 논의 밖

3) ‘결국’이 문장부사 외, 용언의 직접구성성분으로 보일 때도 있다. 예컨대, ‘결국에 가서는’ 과 같은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은 의미적으로 ‘결국’과 동일하며, 연어구로 기능하기 때문에 부사구로 보는 것이 옳다. ‘결국에 가서는(~가면)’은 이 형태 외에는 다른 형태로, 예컨대, ‘결국에 갔다’ 혹은 ‘결국에 갈 것이다’ 등으로 쓰이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이라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결국’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을 논하기 위해서는 문장부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문장부사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로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양태부사와 앞 문장의 의미를 뒤 문장에 이어주면서 그것을 꾸미는 접속부사를 포함한다’와 같은 문법론적 정의⁴⁾와 ‘문장부사 설정에 대한 재고’(김선호 2005)나 ‘문장 수식어 범주’의 설정 제안’(임유중 1997), 그리고 ‘문장부사 위치’에 대한 논의(신서인 2011) 등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존의 문장부사라는 범주가 내포하는 언어적 현실은 매우 이질적인 언어현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장부사’라는 범주만으로는 개별 어휘의 특성을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부사 범주에 대해서도 제한적 문법론에서 벗어나 하위부류에 대한 상세한 의미 및 화용론적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문법론적 입장에서 ‘결국’을 문장부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하위분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관찰된다. 특히, 손남익(1995)과 이승명(2001)에서 세부 분류의 차이가 있는데, 손남익(1995)은 ‘결국’을 문장부사의 하위 범주인 ‘서법부사’로 분류했으며, 이승명(2001)은 문장부사의 하위에 있는 ‘접속부사’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문장부사로 분류될 수 있는 단어들이 실제로는 접속의 기능을 얼마간 지닌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⁵⁾ 받아들인다면, 문장부사의 하위에 있는 서법부사와 접속부사 간의 뚜렷한 경계 짓기나 구분은 힘들며, 이들 부류에 있는 어휘 중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어휘군을 따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법범주의 기능주의적 분석을 벗어나 ‘결국’에 대한 의미적 분석은 최

4) 남기심&고영근(2005(1985)).

5) ‘문장 부사로 분류될 수 있는 단어들이 실제로는 접속 기능을 얼마간 지닌 경우가 있다’(임유중 1997: 456).

건(1991)에서 시도되었는데, '마침내'와의 비교를 통해 '결국'의 시상과 의미적 특징을 기술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동작 행위의 진행과정을 내포한 [+마지막]의 의미
- 긴 과정과 반복
-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과 모두 결합 가능
- 동작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강조.

이것은 '결국'의 시상적 의미를 포착하고 의미적 호응을 이루는 사건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지만, 위의 분석이 모든 문맥에서 '결국'을 일관성 있게 특징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다른 어휘와 변별될 수 있는 자질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용례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사 '결국'에 대해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사성 명사에 대한 연구인 정희정(2000)에서는 문장 부사어로 쓰여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명사를 '양태 명사'로 규정하고 양태 명사의 통사적 특징으로 '분열문의 구성' 가능성을 들고 있다(2000:163). 그러나 양태 명사로 규정된 [정말, 실상, 보통, 사실] 등과는 달리 '결국'은 분열문을 구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형태적으로 그리고 문법적 기능으로는 양태 명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통사적으로는 양태 명사로 분류될 수 없다.⁶⁾ 이처럼, 형태, 통사 및 의미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던 '결국'은 문장부사라는 기능적 측면만이 강조되었고, 그 외의 의미나 화용적 특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어진 바 없었기에 이 글에서는 '결국'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 정희정(2000)에서도 '결국'은 양태 명사의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세종말뭉치(2010년 배포판)와⁷⁾ 그 외 인터넷 신문, 잡지에서 수집한 ‘결국’을 포함하는 용례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세종말뭉치에서 ‘결국’은 일반명사(NNG)와 일반부사(MAG)로 형태소 정보가 부착되었는데, 일반명사는 5,506건, 부사는 1,280건이다. 세종말뭉치 전체 자료에서 ‘결국’의 출현빈도는 약 0.02% 정도이지만, 유의어로 취급되는 ‘마침내’(1,880건, 0.01%)나 ‘드디어’ (1,161건, 0.00%)와 비교하면 그 출현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말뭉치의 형태소 주석에서 조사가 부착되지 않은 ‘결국’은 부사로 인식되었다. 반면, 일반명사로 인식된 ‘결국’은 조사가 없는 경우와 [은, 예, 엔, 예는] 등의 조사가 부착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형태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세종말뭉치(2010)에 나타난 ‘결국’의 형태 및 출현 빈도

품사		무조사	<결국에>	<결국엔>	<결국에는>	<결국은>	총 출현 횟수	
명사	문어	4,525 (82.2%)	30 (0.5%)	57 (1%)	134 (2.4%)	760 (13.8%)	5,506	5,575
	구어	0	10	26	25	8	69	
부사	문어	1052 (99.9%)	0	0	0	1 (0.1%)	1,053	1,290
	구어	150 (63.3%)	0	0	0	87 (36.7%)	237	

위의 [표 1]을 통해서 우리는 (1) ‘결국’은 무조사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

7) 세종말뭉치(2010년 배포판)의 형태소 주석된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문어 말뭉치의 규모는 7,252,388 어절이며, 구어 말뭉치는 805,646 어절이다.

가 훨씬 많다는 사실과 (2) 명사로 인식된 ‘결국’의 형태 중에서도 조사 없이 쓰이는 경우가 전체의 82.2%로서 용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실상 ‘결국’의 형태적 분류나 품사 내, 하위분류의 문제보다는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결국’의 의미 및 화용적 기능을 분석할 때 품사분류에 따른 분석보다는 말뭉치의 문어, 구어에서 나타난 기능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고찰해보고 이후, 신문과 같은 언론자료를 부차적으로 활용하여 ‘결국’의 의미 및 화용적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세종말뭉치는 대용량 균형말뭉치로서 각 분야의 텍스트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언어 변화나 현상을 살펴보기가 쉽다. 그러나 2010년 배포판이라고 하더라도 말뭉치를 이루는 텍스트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수집된 것이라 최근의 자료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선, 중앙, 한국일보의 인터넷판에서 ‘결국’을 포함하는 용례와 월간지(여성조선 2012년 10월호)를 대상으로 ‘결국’을 포함하는 용례 등 총 120여 건을 추가로 추출하여 본 연구의 참고 자료로 삼았다.⁹⁾

8) 신서인(2010)에서는 조사 없이 쓰인 ‘결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세종말뭉치에 명사로 주석된 것은 [결국 + -∅, -은, -에, -엔, -에는]의 형태를 띤다. 세종말뭉치에서 조사와 함께 쓰여 명사로 처리된 ‘결국’ 또한 사실상 문장 내에서는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어서 이 또한 문장부사어로 이해될 수 있다.

9) 따라서 세종말뭉치에 대해서는 출처정보를 달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보조 자료에서 추출된 용례는 출처정보를 밝힌다. 조선닷컴은 ‘조’, 중앙일보 인터넷판은 ‘중’, 한국일보의 경우는 ‘한’, 여성조선은 ‘여조’로 표시하고 이어 기사가 게재된 날짜를 붙였다.

Ⅲ. ‘결국’의 의미적 기능

기존의 국어 부사의 분류방법에 따르면 ‘결국’은 통사 및 의미적 측면에서 문장부사로서, 세부적으로는 서법부사(강조) 혹은 접속부사로 분류되었고 시상의 가치를 지닌 부사로 인식되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함께 말뭉치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결국’의 의미적 기능을 살펴본다.

1. 화자의 태도

우선 ‘결국’은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1) 결국 그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2-2) 그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2-3) 그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결국.

(2-1)에서 볼 수 있듯이 문두에 있는 ‘결국’은 후행하는 ‘그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를 수식하여 수식하는 문장의 사건이 어떠한 일의 마지막에, 혹은 최종 상황에서 일어난 일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사태를 인식하는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장 전체에 대한 화자의 견해나 관점을 밝히는 양태(화식, 서법)부사라고 하겠다.

문장부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대상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2)에서처럼 주어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 (2-3)에서처럼 문미에 나타나기도 하기에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장부사의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는 일반적으로 문장 머리인데, 신서인(2011:218)은 이를 무표적 어순으로 기술하면서, 문장부사가 문장 첫머리에 있지 않다면 문장부

사 앞에 나오는 성분은 주제화된 것이라고 하였다.¹⁰⁾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장부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결국’의 의미적 특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2. 수식하는 문장의 서법 특성

‘결국’이 문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결국’과 호응하는 서법에 관한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미 손남익(1995:221)에서 ‘결국’은 그것이 이끄는 절에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을 모두 용인하지만, 명령문과의 결합은 어렵다고 지적된 바 있다. 다음은 말뭉치에서 추출된 용례로서 ‘결국’은 앞의 (1)~(4)에서처럼 평서문뿐만 아니라 의문문, 감탄문, 그리고 일종의 명령문까지 수식한다.

- (5) 결국 내각의 합이 190도든, 170도든, 아니면 무한대든, 틀린 대답이라 할 순 없겠죠?
- (6) 그렇다면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
- (7) A: 계속 빵글 빵글 돌기만 하는 거야.
B: 결국 그냥 아무거나 먹지.
A: 응, 결국 아무거나 먹었지.

(5)의 예는 의문문이 결합된 용례로서 수사어문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어 말뭉치에서는 ‘결국’이 직접 의문문과 결합하는 예보다는 “~아닐까?”, “~않을까?” 류의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6) 또한 (5)와 마찬가지로 수사어문문과 결합하는 예다. (6)의 예문은 의문문을 이루는 종결

10) ‘결국’이 위치에 따라 의미 기능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어 상에서 어조와 강세에도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미에 감탄을 표현하는 느낌표가 붙어 그 해석이 중의적이지만 문맥상 수사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7)-B의 경우는 명령형 어미와 결합한 형태지만 청자에게 직접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제안’의 화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¹⁾

우리는 (7)-B의 발화문처럼 ‘결국’이 제안 행위의 발화문과 결합하는 경우가 말뭉치에서 용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제안이나 청유는 미래를 포함하는 현재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B의 발화문은 단 순히 상대방에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도 B의 발화문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이 완화된 명령문인 제안형이나 청유형, 혹은 나아가 명령문과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의 예문을 보자.

(7-1) A: (돌아다니기 피곤하니) 결국 그냥 아무거나 먹지(먹어, 먹자).

B: 그럴까?

(8)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결국 네가 그 일을 하지(해라).

(7-1)과 (8)에서는 ‘결국’이 명령문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결국’이 문장을 수식하는 문장부사로서의 용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보다도 여기서 ‘결국’은 앞선 상황에 대한 논리적 귀결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이 두드러진다. 사실상 이 두 문장은 예상되거나 맥락적으로 상호 이해된 상황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결국’과 결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에 대한 서법적 제약은 ‘결

11) 예문 (7)은 구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두 사람의 대화를 옮긴 것이다. 대화의 앞부분에서 A는 식사 메뉴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고, B는 “결국 그냥 아무거나 먹지.”에서 A가 처했던 과거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종의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이 문장부사로서 기능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결국’이 문장부사의 본디 기능이 아닌, 선행절(혹은 전제된 상황)과 후행절을 논리적으로 잇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때에는 특정 서법과의 결합 제약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의 논증적 기능(III-5절)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3. 수식하는 문장의 의미적 특성

‘결국’의 특징으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는 ‘결국’이 “뒷 문장의 [±긍정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¹²⁾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수식하는 문장이 표상하는 사태만을 강조할 뿐, 문장과 의미적 결합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최 건(1999)에서도 ‘결국’의 [+긍정/+부정]과 [-기대]의 의미자질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데, ‘결국’이 이끄는 문장의 의미를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어떠한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며, 화자의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말뭉치에서는 ‘결국’이 이끄는 문장(혹은 절)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 내용이나 부정적 내용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국’과 결합할 수 있는 문장의 의미적 특성을 단순히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이나 [긍정/부정]이라는 화자의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특성만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보인다. 다음의 예를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다.

(9) 중국도 결국은 사람 사는 사회다. (중 2012-08-06)

(9-1) 중국도 (?마침내, *드디어) 사람 사는 사회다.

12) 손남익(1995: 56).

(10) 과장에서 차장이 되면서 월급은 늘었지만 들어가는 돈도 더 많아졌다.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다.(한 2012-07-28)

(10-1) 과장에서 차장이 되면서 월급은 늘었지만 들어가는 돈도 더 많아졌다.

결국(마침내, 드디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다.

첫째, ‘결국’이 이끄는 문장의 시상적 측면을 살펴보자. (9)에서 “중국도 (…) 사람 사는 사회다”는 (9-1)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침내’나, ‘드디어’ 와 결합할 수 없다. ‘결국’의 위치에 ‘마침내’나 ‘드디어’를 대체하여 쓰면 부자연스럽거나 비문이 된다. 그런데 (9-1)의 문장을 ‘중국도 사람 사는 사회가 되었다’처럼 완료상으로 바꾸면 ‘마침내’나 ‘드디어’와 결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침내’나 ‘드디어’와는 달리 ‘결국’이 완료상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문장과도 결합한다는 점이 ‘마침내’와 ‘드디어’와는 차별되는 특징으로 관찰된다.¹³⁾

둘째, ‘결국’이 이끄는 문장이 긍정적 의미인지, 부정적 의미인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며 발화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10)에서 ‘결국’이 수식하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다’는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10-1)은 동일한 문장에 ‘결국’과 ‘마침내’ 그리고 ‘드디어’를 썼을 때, 각각 다른 의미효과를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문장 자체에 긍정,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피수식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표현하는 발화의 표지로 세 부사가 각각 다른 의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대신 ‘마침내’나 ‘드디어’를 쓰게

13) ‘드디어’나 ‘마침내’가 수식하는 문장이 완료상이 아닐 수가 있다. 예컨대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 온다” 와 같이 표면상 완료상이 아닌 문장을 ‘드디어’가 수식하는 경우에도 ‘돌아온다’는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돌아오게 되었다’의 완료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되면, 화자는 기대하던, 혹은 의도하던 일을 이룬 것으로 작용하게 되며,¹⁴⁾ 반대로 ‘결국’이 오면 화자의 기대나 의도, 목적성을 모두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0-1)에서 화자는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다”는 사실을 중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최 건(2001)에서 제시한 결국의 의미특성인 [-기대] 또한 ‘결국’의 의미를 기술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결국’은 ‘화자의 기대’가 없었던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는 ‘결국’이 수식하는 문장에 대해 어떠한 주관적 의견이나 가치 표명을 유보하고, 다만 앞선 일련의 사건의 끝 지점에 가서 일어난 일만을 표현할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결국’이 긍정과 부정적 의미가 있는 문장을 모두 제약 없이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화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발화하는 태도에서 사건에 대한 중립적 입장이나 의지를 표명하는 담화 표지로 볼 수 있겠다. 즉 ‘결국’이 이끄는 문장에는 화자의 처지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목적성이나 의도성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의 인과 기술에 중립적이어야 할 신문 텍스트에 ‘마침내’와 ‘드디어’보다 ‘결국’이 더 빈번하게 쓰인다고 볼 수 있다.

4. 시상적 의미 특성

‘결국’은 ‘드디어, 이윽고, 비로소, 급기야’ 등과 함께 시상을 나타내는 부사로 받아들여져 왔다. 박선자(1996: 206)를 따르면 ‘결국, 드디어, 이윽고, 비로소, 급기야’는 모두 동작성 풀이말과만 공기한다고 했으나, 다른 시상

14) 한편 문금현(1988: 134)에서는 [드디어, 마침내, 결국, 급기야, 기어이, 기필코, 필경] 부류의 부사 유의어에 주목했는데, 이들 부사류는 내포 의미적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이들 부사의 의미 차이를 [의지력]의 정도, 혹은 ‘주체성’의 정도로 구별하였다. ‘드디어’와 ‘마침내’의 공통 자질은 [+결국]이며, 차이는 [필연] 자질의 유무로 구별했다.

부사와는 달리 ‘결국’은 동작과 상태를 표현하는 용언과 결합이 모두 가능하며 용언의 시제에 따른 결합 제약이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 고생 끝에 그는 결국 성공했다.
- (9) 중국도 결국은 사람 사는 사회다.
- (10) 과장에서 차장이 되면서 월급은 늘었지만 들어가는 돈도 더 많아졌다.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다.
- (11) 결국 김씨는 퇴사를 했고, 대부분 무직 상태로 지냈다고 한다.
- (12) 결국 나도 그럴 거야.

우선 (1), (10), (11)은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며 (9)와 (12)는 동작성이 아니다. 또한 ‘결국’은 그것이 수식하는 문장의 용언의 시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1), (10)과 (11)에는 과거, (9)는 현재, (12)에서는 미래와 결합하는 데 제약이 없다. 이와 같은 용례를 통해서 볼 때, ‘결국’은 그 자체로 어떤 시제를 나타내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¹⁵⁾

(1)에서 ‘고생 끝에’가 전제하듯, ‘성공했다’는 ‘고생’ 뒤에 후행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결국’은 ‘어떠한 일련의 사건의 끝에’ 일어난(혹은 일어날) 후행 사건을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 (10)의 경우에도 ‘결국’의 선행 사건인 ‘들어가는 돈도 더 많아졌다.’는 완료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결국’은 앞선 상태가 지속된 끝에 후행 사건인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다.”가 연결됨을 표현해주고 있다. 따라서 (1)과 (10)의 경우로 보았을 때, ‘결국’은 선행사건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음을 전

15) 손남익(1995: 69, 75)은 이와 같은 부사의 특징을 시제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는 무시제형 시간부사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무시제 시간부사’는 이 시간부사가 어떤 시간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언과의 공기에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제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11-1)을 보자.

(11-1) 김씨는 이듬해 팀장으로 진급했지만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서 회사 동료들의 험담을 듣게 됐다. 결국, 김씨는 퇴사를 했고, 대부분 무직 상태로 지냈다고 한다.

(11-1)에서는 '결국'에 선행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지속된 상태라기보다는 일정 횟수 반복된 사건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동료들'이라는 복수지표가 '험담을 듣게 됐다'는 사건이 일 회성이 아니라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반복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최 건(1991: 17)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러한 의미적 전제를 통해 '결국'이 반복을 나타내는 성분과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선행사건이 다음과 같을 때 '결국'이 이끄는 후행 문장과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11-2) 김씨는 <...> 회사 동료들의 험담을 (여러 번, 자주, 많이, 빈번하게) 듣게 됐다. 결국, 김씨는 퇴사를 했고, 대부분 무직 상태로 지냈다고 한다.

(11-2)에서 '결국'은 후행상적 가치를 지니며¹⁶⁾ 선행하는 문장의 사건은 과거에 어느 정도 지속, 또는 반복된 사건이거나 혹은 이러한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6) 종반지시어로서 그 의미가 화자의 의지, 판단 등 심리적, 서법적 양태성이 가미되어 양태부사로도 볼 수 있는 시간부사이다.(민현식 2004: 207, 211)

5. 논증적 기능

(1) 논증을 위한 접속기능

‘결국’이 선행절과 후행절을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앞의 3.4에서 살펴본 ‘결국’의 후행상적 특성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9-2)를 살펴보자.

(9-2) 그러나 국민의 희생을 끌어내는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결국은 사람 사는 사회다.

(13) 여기에 덧붙여 글 솜씨도 있어야 한다.

신문기자는 결국 글로 승부하는 직업이다.

(14) 문화는 대중의 생활양식이고 사고방식이다.

결국 문화는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위의 (9-2), 그리고 (13)과 (14)에서는 선행 사건과 ‘결국’이 수식하는 문장 사이에 어떠한 시간적 전후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선행 문장이 표현하는 사태는 ‘결국’이 이끄는 문장의 사태와 시상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논증적 층위에서 연결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9-2), (13)과 (14)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또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의 의미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이승명(2001: 232)에서는 ‘결국’의 접속부사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어 ‘결국’이 문장 간의 순접과 요약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제 ‘결국’의 선후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찰해 보면, 선후 문장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는다. 아래에 제시한 선후 문장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자.

<선행문>	결국(은)	<후행문>
(9-2) 국민의 희생을 끌어내는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중국도 사람 사는 사회다.
(13) 여기에 덧붙여 글 솜씨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문기자는 글로 승부하는 직업이다.
(14) 문화는 대중의 생활양식이고 사고방식이다	?그리하여	문화는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문과 후행문 사이에 순접의 기능을 하는 다른 접속사를 대체해 보았을 때, 위의 (9-2), (13), (14)의 용례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선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행문의 의미는 ‘결국’이 이끄는 후행문과 논리적 필연성이 없음에도 ‘중국에 가면’이라는 의미인 ‘결국’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이 선행문에서 제시된 경험적 사실을 후행문에서 일반화의 논리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험적 사실에서 일반화의 논리로 비약하는 연결(순접)은 논증의 전개상 부자연스러우며 또한 순접 접속사를 쓰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순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보다는 ‘논리적 전개 과정’이나 논증의 단계에 필요한 접속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마지막 국면만을 제시함으로써 두 문장의 연결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표지로 쓰이고 이와 같은 ‘결국’의 역할은 단순히 접속부사로서 축소 기술할 수 없는 발화적 가치와 논증적 역할을 보여 준다.

(2) 사건 관계의 개연성과 논증의 강화

‘결국’의 쓰임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지만, 문금현(1988: 77)에서는 ‘마침

내'와 '드디어'의 의미자질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모두 [+결국]이라는 자질을 지녀 동의어지만, [+필연]의 자질은 '마침내'에만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마침내'와 유의 관계인 '결국'은 [+필연]의 자질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아래의 예문을 보자.

(15) 이 교수는 김씨를 끝까지 쫓아갔다.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었다.

(16) 전문 산악인들에게도 어려운 세계 각 대륙 최고봉 등정을 목표로 세웠다. 결국 장애인 세계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등정했다. (중 2012-08-22)

여기서 '결국'은 선행하는 절의 사건과 후행하는 절의 사건 간의 선후관계와 시간적 선후 관계를 전제한 논리적 관계를 연결한다. 그러나 '결국'이 포함된 문장의 관계를 관찰했을 때 사건 간의 필연성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의 의미적 자질을 "필연성"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15)의 경우에서 선행문의 '쫓아갔다'와 후행문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었다'와 같은 두 사건 관계의 필연성은 앞 문장에서 후행 문장의 말할 일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를 제시하는 '따라서'와 같은 접속부사를 통해 부여된다. 그런데 (15)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결국'은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을 선후관계로 이어주면서, 후행절의 사건을 하나의 예상된 결과로 제시할 뿐이다. 이 경우에 '결국'이 '따라서'가 가진 사건 관계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16)에서 '<...> 최고봉 등정을 목표로 세웠다.' 와 '<...> 세계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등정했다.' 사이에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통한 개연성만 존재할 뿐, 어떠한 필연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이 연결하는 선행문장의 사태와 후행문의 사태는 논리적 필연성의 관계가 아니라, 시간

적 선후관계에서 비롯된 개연성을 바탕으로 후행문의 사태를 강조하여 담화의 전체 구조 속에서 화자가 제시할 결론의 논증 방향을 강화하는 담화적 기능을 한다.

(3) 대립하는 절의 접속 관계

다음의 예문에서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논증적 관계를 '결국'이 더욱 강화하는 담화적 기능을 보인다.

- (17) <피에타>는 이 복수가 전면에 나서지만 결국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다. (여조 2012-10월)
- (18) 어떻게든 그를 핵심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한 2012-08-03)
- (18-1) 어떻게든 그를 핵심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려고 했지만 [?마침내/?드디어] 무산되고 말았다.

(17)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하는 절 '<피에타>는 이 복수가 전면에 나서지만'과 '결국'이 이끄는 절 '<피에타>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다'는 연결어미 '지만'을 통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 연결 구조에서는 '지만'이 갖는 대립적 의미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P “<피에타>는 이 복수가 전면에 나선다”
 ==> R “<피에타>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다”
 - P지만 “<피에타>는 이 복수가 전면에 나서지만”
 ==> ~R “<피에타>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선행절의 전제 의미를 고려할 때 (17)의 문장은 '결국'이 선행절

의 전제 의미에 따라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반대나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지만(지만)’, ‘는데’, ‘어도’, 등으로 끝나는 절 P와 후행 Q절이 연결되게 되면, P가 전제하는 바와 반대되는 결과인 $\sim R$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이 후행절 Q에 나타나게 된다.¹⁷⁾ 따라서 ‘P지만’, 혹은 ‘P(이)어도’로 구성되는 양보절 뒤에는 P가 전제하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절과 결합하게 된다. 이때, ‘결국’은 두 절을 연결할 수 있지만, ‘마침내’와 ‘드디어’는 (17)에서 ‘결국’과 대체하여 쓰일 수 없다. (18)의 경우도 ‘지만’과 같이 대립의 의미를 지닌 접속 어미를 통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가 대립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볼 때, 선행절 연결어미의 의미가 후행절과 대립, 양보를 나타내게 될 때, ‘결국’은 선행절의 전제와 대립되는 후행절을 이끌 수 있지만, ‘마침내’와 ‘드디어’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최 건(1991)은 ‘마침내’는 긍정적 의미만을, ‘결국’은 긍정 및 부정적 의미를 모두 전제할 수 있다고 했으나, (17)과 같은 용례에서는 후행절에 긍정적 의미가 전제되어도 ‘마침내’가 쓰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결국’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국’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결국’이 문장 간 연결의 기능을 할 때, (1) 선행과 후행절의 사건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배열하고, (2) 논리적 방향을 배열하는 역할을 하여 화자가 말할 바를 더욱 강조할 수 있는 논증적 기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결국’은 (3)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립할 때 두 절 사이의 연결을 하되 담화의 조직에서 후행절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더

17) 문규현(2004: 235)에서 문장부사나 감탄사와 같은 “독립성이 강한 문장 성분들은 전제의 생성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복합문에서 접속어미, 혹은 접속사 뒤에 나오는 ‘결국’의 출현 자체가 전제를 직접 생성하지는 않지만, 선행절과 후행절의 전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이 이끄는 후행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효과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논증적 기능은 ‘드디어’나 ‘마침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질이다.

IV. 발화행위의 표지 ‘결국’

말뭉치에서 ‘결국’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앞서 관찰한 문장 수식과 연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화용적 기능이 나타난다. ‘결국’과 같은 부사는 문장에 대한 화자의 태도, 즉 화자의 언술에 대한 화자로서의 주체성(subjectivity)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태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발화의 양태와 관련하여 기술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결국’이 갖는 양태의 가치와 더불어 다양한 발화 행위적 가치에 주목하여 문법론의 층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현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감정의 표현

‘결국’은 대화 속에서 특정 억양과 함께 화자의 감정을 부각한다.

- (19) 웃기지 마. 이리와. 결국은 처음에 그렇게 하면 될걸.
- (20) 어제 일을 끝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잖아? 결국!
- (21) A: 막~ 핸드폰에 전화해서 당장 옷 갈아입고 가라고 그랬나봐.¹⁸⁾
B: 응.
A: 결국 지 고집대로 갔다왔지.

18) 이 글에서 세종 구어 말뭉치의 음운적 요소에 대한 표기 방법을 재현하지 않고, 꼬꼬마 말뭉치 용례검색기에서 제시하는 표기방법대로 옮겨 썼다.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난 (19)의 용례에서 ‘결국은’이 후행문의 ‘처음에 그렇게 하면 될걸’ 앞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여기서 ‘결국은’은 문장부사나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결국은’은 형식적으로 후행하는 문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또한 마침표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9)에서 ‘결국은’에는 상대방에게 유감스러움을 나타내는 억양이 함께 들어가 상황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과 같이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화될 수 있는 문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뒤따르는 후행절이 없이 ‘결국’이 그 자체로 음운적 강세가 부여된 발화문을 이루어서 생략된 어떤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화자나((20)의 경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타인((21)의 경우)에게 실망이나 원망을 표현한다. 그러나 (19)나 (20)과 같은 용례는 말뭉치에서 출현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결국’이 항상 고정된 어떤 특정한 감정을 표출하는 담화적 기능을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처럼 ‘결국’이 그 자체로 발화문을 형성하면서 감정 표현의 기능을 하는 예는 일상의 대화에서 타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나무랄 때 자주 고찰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결국’의 기능과 특성의 고찰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20-1)에서는 이러한 ‘결국’의 쓰임이 ‘마침내’나 ‘드디어’와 같은 ‘결국류’ 부사로 대체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20-1) 어제 그 일을 끝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잖아? 결국!(*마침내!)

여기서 ‘결국’은 독립적인 발화문을 형성하여 ‘어제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미룸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과 ‘결국 일을 그르치게 한 상황’에 대해 책망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결국’이 비난이나 책망과 관련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할 때, 유의어인 ‘마침내’나 ‘드디어’와 대체될 수 없다.¹⁹⁾ 나아가, 구어에서 특정 억양이 동반되어서 ‘일련의 사태가 선행되었고 마지막 국면에 가서도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 감정적 표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간추림과 마무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결국’의 의미는 명사로서는 ‘일이 마무리되는 마당이나 일의 결과가 그렇게 돌아감을 이르는 말’, 부사로서는 ‘일의 마무리에 이르러서’의 의미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며 선행된 사태의 결과로서 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국’은 어떠한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의 태도, 즉 일련의 사태에서 마지막 국면에 이루어지는 사행 P를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런데 앞서 제시된 것 외에도 ‘결국’은 또 다른 유형의 발화행위에 참여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22) 옛날로부터 허다한 사람들이 이 무한과 위대에 정신이 아찔하여 비관의 벼랑에 떨어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무대는 결국 무대요, 배우 자신은 아니다.
- (23) 그러므로, ‘나’ ‘나의 몸’ ‘나의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하여 태어났다 하여도 몸은 태어났지만 ‘나’가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태어나지 않은 것이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문에서 화자는 ‘결국’을 통해 이제껏 자신이 말했던 내용을

19) ‘드디어’가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을 나타낼 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마침내’는 (20-1)에서처럼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즉, ‘(앞에서 내가 언급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것에 바탕을 두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23)에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이라는 의미와 가깝다. ‘결국’의 이러한 기능은 화자 자신의 담화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상대방의 담화를 요약하고 교착하는 역할과도 같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국’의 기능을 리겔 외(Riegel, M et al. 2009(1999): 655)는 텍스트의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다는 조작(balisage textuel)으로 규정하면서 독자나 청자가 텍스트나 담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표지로 보았다.

3. 담화 표지

‘결국’은 대화 속에서 화자가 언술을 수정하거나 반복하는 기능을 하며 언술 사이의 휴지를 메꾸는 역할을 한다. 이때, ‘결국’은 발화 중에 후행 문장과의 연결 여부를 떠나 문장 사이에 삽입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결국’은 선행문의 사태와 후행문의 사태를 시간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일정한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이 아니라 발화문의 형성 과정에서 발화행위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4) A: 하나 직접 혼내주고 때려주고.

B: 흥길동 아냐?

A: 그니까 결국 그래서, 뭐~ 우리 나라 뭐~

(25) A: 주성치 영화가 다 그렇지 뭐. 되게 유치해. 그래 가지구.

B: 유치해, 유치한 게 재미지 않나?

A: 아니 근데 결국 그래서 첫 판에서 막 이겨. 그리고 나면 솔직히, 뭐가 <...> 강팀들을 만나서 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6) 정말 감사합니다. 에~ 앞으로, 어~ 결국. 국어 정보와 관련을 해가지고는...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걸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실, 바로, 그 주역이 아니신가.

(24)과 (25)의 경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옮겨 놓은 것이다. (24)에서는 ‘결국’이 ‘그니까’와 ‘그래서’와 같은 접속사 사이에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결국’이 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뒤에 오는 ‘뭐~ 우리 나라 뭐~’와 같은 발화문도 ‘결국’과 의미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화자 A는 아직 발화되지 않은 결론을 염두에 두고 ‘결국’을 통해 ‘마지막 국면’이라는 정보를 줌으로써 상대 화자의 주의를 끈다.

(25)에서도 (24)과 동일한 담화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데 화자의 주의를 끄며 동시에 앞선 말을 간추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26)은 짧은 연설의 서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을 써서 요약하거나 결론을 제시할 내용이 없음에도 ‘결국’을 도입함으로써 후행하는 문장의 내용이 결론과 같이 주의를 끌 만한 것으로 제시한다.

V. 결론

이 글은 문장부사라는 범주로, 그리고 ‘마침내’와 ‘드디어’와 유의어를 형성하는 어휘로 인식되어온 ‘결국’의 의미 및 화용적 기능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형태소 주석이 된 세종말뭉치(구어와 문어)와 일간지의 신문자료를 말뭉치로 삼아 분석한 결과 ‘결국’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양태부사이자 접속의 기능, 그리고 담화표지의 역할까지 다양한 의미 및 화용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본 연구가 도출한 결과이다.

첫째, 그동안 문장부사로서의 ‘결국’과 결합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명령(제안)문’이 말뭉치에서는 ‘결국’과 결합되어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장부사로서가 아니라 접속의 역할을 하는 ‘결국’의 특성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국’이 수식하는 문장은 어떠한 시간적 흐름에서 마지막 국면에 이루어진 사행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의미적 특성은 특정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었던 [±공정]이나 [±기대]와 같은 이분법적 자질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수식하는 문장에 대해 오히려 화자가 특정한 의도나 목적성이 없이 중립적 입장을 취할 때 선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결국’이 수식하는 문장에서 용언은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동작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넷째, ‘결국’이 선행절과 후행절을 의미적으로 연결하면서 두 절의 사행이 시간적 전후 관계가 아닌 경우, 논증을 위한 접속 기능을 보인다. 이때 ‘결국’이 이끄는 절은 담화에서 화자가 제시할 결론의 논증 방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섯째, ‘결국’은 구어 말뭉치에서 화자의 분노, 후회의 감정, 또는 책망의 언술 행위를 부각하거나 화자의 주의를 끄는 담화표지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결국’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은 단순히 ‘문장부사’의 특징을 넘어서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구어와 문어 말뭉치에서 그 쓰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에서 도출된 결과는 그간 유의어로 취급되었던 ‘마침내’나 ‘드디어’와 같은 ‘결국류’의 부사에 대해 각각의 고유한 의미 기능과 화용적 특징이 분석될 필요성과 나아가 ‘결국’과 같이 ‘마지막 국면’을 의미하는 한자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로 보완될 필요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세종 말뚝치 2010 배포판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2. 논문 및 단행본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김선효, 『문장부사 설정에 대한 재고』, 『언어와 정보 사회』6,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005, pp.36-54.

남기십&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05(1985).

문금현, 『現代 國語 類義語의 研究 : 類型分類 및 意味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민현식, 『국어의 사상과 시간부사』, 한국학술정보, 2004.

박선자, 『한국어 어찌말의 통어의미론』, 세종출판사, 1996.

손남익, 『국어 부사 연구』, 박이정, 1995.

신서인, 『부사성 명사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47, 한국어학회, 2010, pp.192-234.

_____, 『문장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61, 국어학회, 2011, pp. 207-238.

이승명, 『부사와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8, 한국어 의미학회, 2001, pp.221-239.

임유종,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에 대한 연구』, 『한양어문연구』14, 한양어문학회, 2006, pp.187-218.

_____, 『문장 수식어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1,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7 pp.455-476.

정희정, 『한국어 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2000.

최 건, 『«마침내»와 «결국»』, 『중국조선어문』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91, pp.17-19.

Dostie, G., Pragmaticalisation et marqueurs discursifs. Analyse sémantique et traitement lexicographique. De Boeck Duculot: Coll. Champs linguis-

tiques, Bruxelles, 2004.

Riegel, M., Pellat, J-C., Rioul, R. 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 PUF, Paris, 1994, pp.646-659.

Schiffrin, D.,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Zimmermann, M. Discourse particles. In K. von Heusinger, C. Maienborn & P. Portner, (eds.), Semantics. De Gruyter Mouton, 2011.

Abstract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of 'kyeolguk'

Lee, Eun-Ryoung

'Kyeolguk(finally)' can be considered as a modal sentence adverb in the sense that it indicates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his or her sentence. In the lexical class of 'finally', we can also find other adverbs such as 'deudieo', 'macimnai' and so on. However, when we investigate the corpus, the result shows that 'kyeolguk' is being used more frequently in the much broader context than its synonymous words. Nevertheless, 'kyeolguk' has neither been studied as a main subject of the preceding research, nor been made a detailed distinction of synonymies in Thesaurus. More research is needed in the sense that each of these lexical items shows differences in their semantic features.

In this study, we extract and analyze about 6,700 occurrences of 'kyeolguk' from the large scale corpus Sejong(2010 distributed version) and from the daily and periodical newspapers to review the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that can not be captured by the analysis based on the simple part of speech classification or the grammatical descriptions.

To this end, using the annotated corpus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we analyze the function of 'kyeolkuk' and the context where it appears. In particular, we extend our discussions on the argumentative values of 'kyeolguk' and its functions as discourse marker, that was not included in the study of the lexical class of 'finally'. Furthermore, we expect to extend the result of this study to design the contrastive study on the semantic and pragmatic features of the lexical class of 'finally' in different languages.

Key Word : finally, semantic function, pragmatic function, discourse marker, sentence adverbs

이은령

소속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교수

주소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화번호 : 010-2989-1944 / 051-510-3583

전자우편 : eunryounglee@pusan.ac.kr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2일 게재 확정됨.